

중국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中国 山东大学 朴银淑

1. 들어가며

언어와 문화는 서로를 의지하고 포함하는 통합과 융합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인류역사 발전과정에서 문화의 발생과 발전 과정에서 언어는 시종일관 문화와 같이 발전해 왔다. 각기 다른 자연, 사회, 역사 환경은 서로 다른 문화를 발생시켰고 다른 문화배경은 상이한 언어와 풍습, 전통, 민족 심리와 가치관을 형성시켰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다양한 문화의 발생 발전과 함께 언어를 발전시켰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중국 학습자들에게 있어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과 이해는 한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한국사회와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 사람들과 상호 간에 이해를 증진시키며 신뢰를 쌓아 상호 간의 교류나 협력에도 아주 중요한 몫을 한다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한 양국 관계의 발전과 심화에 힘입어 지금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육계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중요시되고 많은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한국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교과목 설정에서 한국문화교육이라는 명칭의 부재, 한국문화를 체계적이고도 재미있게 교수할 수 있는 교수진의 부족, 한국문화교육 교재 개발의 빈약함, 한국문화 교수 관련 연구의 부진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한국문화 교육의 산발적, 표면적 결과를 초래하고 중국 내의 현지 실정에 맞는 한 권의 한국문화 교재도 없는 현실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예로부터 이웃 사촌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상생하며 나뉘대도 윈윈(winwin)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근 반세기 동안 벽을 쌓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런 만큼 양국은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서로 차별되는 사회제도와 문화질서 속에서 전통적인 문화의 유사성과는 달리 상이한 민족 정서와 문화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양국은 수 천년 동안 형성된 전통문화 면에서 너무나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지구촌 시대를 사는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상호간에 신뢰를 쌓아나가야 공존공영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의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 학습과 이해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하며 나아가

중국문화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한국학 관련 전문가가 되길 주문한다.

기존의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한국문화 교육 내용의 범주로부터 한국문화 교육의 방향과 방법, 각 단계별 문화 교육내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¹. 이 논문들에는 문화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혹은 광의²로 또는 한국어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에만 국한시키는 주장³이 있기도 하고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할 때 한국어 교육목표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에 따른 문화 인식 능력의 함양을 목표⁴로 삼기도 한다. 또는 초,중,고급 별로 한국문화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⁵ 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에 따라 한국문화교육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어를 전공하는 4 년제 학부 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한국문화교육을 통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은 물론 한국인의 의식 구조나 사유의 방식을 이해해 한국인과의 일상적인 교류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문화인식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쌓아 오늘 날의 다원화 사회, 다문화

¹ 조항록, 「초급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 11 권 1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년.

윤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1 차 국제학술회의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조현용, 「한국문화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 22 호, 이중언어학회, 2003 년.

조항록,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민현식,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어언어문화학회, 2006 년.

문영자, 「한국어교육의 문화적 접근」,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민족출판사, 2006 년.

박은숙, 「한국문화 교육에서 문학작품의 실제적 적용」,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한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민족출판사, 2006.

강현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 조사-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 31 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6 년.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53 ~ 54 쪽.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² 조항록, 「한국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박영순 편 『21 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441 쪽, 2002 년.

³ 조현용, 「한국어문화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344 쪽.

⁴ 안경화, 「한국어 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2007 년, 370 쪽.

윤여탁,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박영순 편 『21 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2002 년, 193 쪽.

박은숙, 「한국문화 교육에서의 문학작품의 실제적 적용」, 위 책, 262 쪽.

⁵ 조항록, 「초급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위 책, 165 쪽.

문영자, 「한국어교육의 문화적 접근」, 위 책, 157~166 쪽.

임효례, 「문화교육 내용 및 체계화에 대한 연구」, 2010 년 중국한국(조선)어교육국제학술회의 논문집(하), 2010 년, 304~305 쪽.

세상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잘 아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가? 지금의 한국문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한 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중국에서의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중국 내 대학들에서는 각자의 교육 목표에 따라 교과목 개설에서 다소 간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공 기초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 설정은 대동소이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어정독, 한국어회화, 한국어듣기, 한국어쓰기, 한국어열독, 한국어시청, 한중(중한)번역, 한국개황, 경제무역한국어, 한국문학사, 한국문학작품감상 등 교과목은 거의 다 개설하고 있다. 그 외에 각 대학교의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한국역사/중한관계사/항일전쟁 연구, 한중어휘/문법대비, 중한번역사, 담판과 통역, 한국근현대국제관계사, 한중(민족)문화비교(연구) 등 교과목이 다르게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⁶. 이렇고 보면 한국문화 관련 내용들이 어떤 수업들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자명하다.

초급단계에서는 한국어정독, 회화, 듣기, 한국개황 등 교과목에서 단편적으로 한글자모 교육, 어휘 교육, 교재에 등장하는 일상 예절, 단편적으로 출현하는 역사이야기나 풍속습관 등을 교수하거나 설명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교사의 수준과 강의 스타일, 그리고 강의 준비 정도에 따라 학생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다르게 수용하고 배울 것이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하나의 어휘나 한 번의 언행, 단편적인 이야기 또는 풍속이지만 교사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전개시키며 분석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은 따분하게 또는 재미있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의 역사지식 전수에 있어 교사의 일방적 설명으로 일관되는 강의를 학생들은 머리 아파하고 식상해 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어떤 사회 현실적인 화제거리나 최신 연구 동향 또는 학생들이 관심 갖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주제별로 아님 인물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엮어나간다면 강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관심 속에서 비교 또는 토론 방식으로 관련 지식들을 훨씬 많이, 깊이 있게 그리고 즐겁게 배울 것이다.

⁶ 한국국제교류재단 엮음,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년, 592~717쪽.

중급단계에 오면 한국문화 관련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상기한 교과목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열독, 한국어시청, 한국역사/중한관계사, 한중어휘 대비 등 수업에서도 문화교육이 이루어진다. 초급단계에 비해 한국문화지식이 증가되고 확장되었다. 이 단계에 오면 초급에서 배운 지식과 중국문화와의 비교,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 속에서 좀 더 많은 문화내용들을 접하고 배우게 된다. 한국 속담이나 풍속, 민속 놀이에 대한 이해,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한국인의 여가생활 등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수업시간 내의 공부, 인터넷, 중국시장으로 들어온 한국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궁금증을 달래고 많은 정보를 입수하면서 한국문화 관련 지식을 급속도로 수용하고 축적한다. 중급 단계는 한국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 발전시기를 교사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이용하는가에 따라 교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급 단계에 오면 초급단계의 높임말 학습과 사용에서 반말을 공부하면서 중국과는 다른 이색적인 화법과 문화에 노출된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화법에서 혼란을 빚기도 하는데 이런 혼란의 과정을 거쳐 한국문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

고급단계에서 한국문화 습득은 주로 한국어시청, 한중(중한)번역, 한국문학작품감상, 경제무역한국어, 한중문화 비교 등 수업을 통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고급단계에 이르면 초, 중급 단계에서 배웠던 한국문화 관련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문화는 삶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일종의 삶의 '무늬'를 그리는 작업이다⁷.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형성시킨 배경과 원인, 과정에 대한 탐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와의 비교 속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위한 고급단계의 한국문화 학습에서 한국문학작품을 이용한 교육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한 예이다. 한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난도가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만큼 훌륭한 효과를 거둔다. 한 편의 문학작품은 그 사회를 가장 압축하여 생동하게 반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문학작품 속에는 해당 시대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 인물들의 생활모습, 가치관과 사상 등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한꺼번에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등 영상물 시청을 통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⁷ 권경우, 『신자유주의와 시대의 문화운동』, 로크미디어, 2007년, 9쪽.

3. 중국에서의 한국문화 교육의 문제점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한국문화 교육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전공 교과목 중심으로 초, 중, 고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의 외연이 광범위하고 내포가 풍부한 만큼 한국문화 역시 언어가 표현하는 많은 영역과 내용들을 담고 있다. 더욱이 언어와 문화는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어떤 언어를 교수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체계와 함께 하나의 문화 체계를 전달하⁸는 것이다. 환언하면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한국어과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를 통해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익히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각 대학들에서도 모두 대개 학생들을 “견실한 한국어 기초지식과 해박한 한국 문화지식, 비교적 높은 인문적 수양을 지니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대외업무,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기업 등 분야에서 통번역, 한국어 교육,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복합 응용형 고급 한국어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 목표의 실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문화 교육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고민해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한국문화교육이 분산적으로 표면화, 파편화되어 교수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문화적 요소 중심으로 여러 교과목에서 문화 내용을 교수하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초급 학습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학생들은 다만 한국어 구사, 표현 능력이 안 되는 것뿐이지 한국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는 것만큼 또는 더 많이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때 최고 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초기 단계의 열의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한국문화 지식을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족시켜야 한다. 한국문화의 초보적인 지식이 쌓이면 한국어 교육도 한결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한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면 한글의 창제시기, 제자원리, 창제자, 본격적인 사용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기에 “왜” 라는 질문을 넣어 이야기하면 더 많은 한국문화 관련 화제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어, 중국문화와 다른 언어, 문화세계를 만나게 하면서 한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게 할 수 있다. 거기에 한국에서는 ‘한글 날’을 기념일로 정해 한국 사람을 비롯해 세상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한글 사랑과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공헌을 한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것과 연결시켜 설명을 하면

8 박갑수,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년, 456쪽.

학생들에게 오늘 날의 한국사회와 문화 분위기를 이해시키면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나 사유의 방식을 학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단계별로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교재나 발표된 연구 논문들에서 학습자들에게 습득시켜야 할 한국문화의 내용과 범위들에 대해 제시⁹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내용들로는 한국의 자연, 역사(인물과 문화유산), 언어문화, 전통과 풍습, 음식, 예술문화, 의복문화, 주거문화, 매체문화, 문학, 사고방식 등 문화의 영역을 총체적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의 맥락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작용으로 선진 문화와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미개 문화와 대중 문화 등을 포괄¹⁰하고 있다.

한국문화가 분산적으로 파편화되어 교육되는 현상은 초급단계에서 여러 가지 보조자료를 활용으로 고급단계에서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신문, 광고 등 시청이나 한국 노래 부르기, 상황극 연출하기 등 방법을 통해 많이 극복되고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문화 교육이 문맥상황 없이 비문맥화한 설명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첫 번째 문제점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초급단계에서 문화 요소들을 분산적으로 교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어휘교육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문화 관련 내용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이해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한국문화 교육을 여러 가지 전통적인 풍습이나 오늘 날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와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어휘 교육에서 ‘한가위’, ‘제사’, ‘민족대이동’ 등 문화 관련 어휘 교육을 전통적인 명절 풍습과 연결시켜 교수하면서 짧고 쉬운 뉴스나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부조’라는 어휘를 가르칠 때는 중국과 구별되게 결혼과 같은 좋은 일과 상사와 같은 불행한 일에 쓰이는 어휘의 다른 표현과 함께, ‘백수’라는 어휘를 설명할 때는 젊은이들의 취업난과 함께 오늘 날 한국사회의 취업관 등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면 해당 어휘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적 접근에도 일조할 수 있다.

⁹ 김중섭 외, 『한국어』 (1-4),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0~2002.

현윤호 외, 『말이 트이는 한국어』, 이화여대 출판부, 1998~200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조재운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2009.

조향록, 「초급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위 글, 164~166 쪽.

민현식,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위 글, 151~154 쪽.

¹⁰ 윤여탁, 위 책 재인용, 54 쪽.

김대행, 「매체 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권오현,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국어교육연구』 12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셋째, 교육현장에서 한국문화 교육이 전통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대문화 관련 내용들이 소외되어 있다. 한국문화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들의 성격과 교육 목표를 감안해야 하겠지만 한국학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학습자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 향유되고 있는 현대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 중심으로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흥취나 관심밖에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전통문화를 간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화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내용들을 조화롭게 하여 학습자들의 오늘 날의 한국사회 이해와 한국인들과의 문화, 사상 교류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하자는 논지이다.

넷째, 학습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한국문화 학습에 직접적으로 부작용을 한다. 이는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중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이런 기초지식의 공백과 미흡은 한국문화 학습과 수용, 이해에 역작용을 하여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른 여타 전공의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인문적인 지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을 대량의 독서나 교양과목 청강 등을 통해 제때에 보완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빈 구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편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지식 면에 대한 높은 요구는 이런 공백 부분을 더 부각시킨다.

다섯째,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객관적 태도의 결여이다.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유교문화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동의 자장 안에서 긴밀한 이웃관계를 유지하며 폭넓은 교류를 해 왔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를 수용 발전시켜 보다 찬란한 꽃을 피우기도 하였다.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중국은 점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잃고 그 권리와 이익을 일본에게 양도하면서 점차 영향권 밖으로 밀려났다. 6.25 전쟁의 발발과 휴전에 이어 한국과 중국은 이념적 대립의 냉전 속에서 근 반세기 동안 벽을 쌓고 단절상태에 처해 있었다. 1992 년에 중한 양국이 수교되면서 양국 관계는 해빙되고 나아가 아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사상 가장 밀접한 교류를 해왔다. 그럼에도 양국 간에는 아직 많은 오해와 불신을 안고 있다. 중국 사람들의 한국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한국문화 아류의식/중국문화 우월의식 등은 한국문화 학습에 반작용을 하며 냉정함과 겸손함을 잃게 한다. 일부 중한 양국의 관련 사이트 글들에서나 어떤 사람들의 선동식 발언은 지양되어야 되며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4. 중국에서 한국문화 교육의 과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국의 한국문화 교육은 한국 국내에서 한국인들에게, 또는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도 다른 한국문화 습득을 필요로 하며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도 다르다고 하겠다.

첫째, 한국문화 교육의 다양화, 위계화, 체계화, 정보화(매체반영)의 필요를 들 수 있다.

중국 내 각 대학의 학생 양성 목표와 특성이 다른 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교수도 다른 내용 구성과 목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관련 보편적인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나 사유 방식을 이해하는 문화 내용은 한국어과 학생들이라면 기본 상식 차원에서 선택 항목이 아닌 필수 항목이라 하겠다.

문화라는 외연과 내포가 광대한 만큼 한국문화 또한 다양하고 풍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풍부하고 포괄적인 문화 내용을 위계화시켜 교수하면 학생들이 그 난이도와 활용도에 따라 이해,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풍부한 한국문화 지식은 초급단계에서부터의 축적과 확대를 거쳐 종합, 체계화의 과정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침투해 있는 오늘 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얻게 된다. 한국문화 관련 지식과 정보도 매체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중,고급 단계에 이르면 뉴스, 영화, 문학작품, 인터넷 정보, 읽기 자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화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중국 교육 현실에 적용하는 <한국문화사> 교재의 편찬의 필요성을 들 수 있겠다.

한국의 각 대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나 요즘 출판되고 있는 한국문화교재들을 통해 한국어의 교수-학습 필요성이 다양화되면서 문화 교육의 관점을 수용하는 한국어교육의 변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한국문화 교재와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민현식 교수는 한국문화사 읽기 교재 구성안을 아주 소상하게 제시¹¹ 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는

¹¹ 민현식, 위 글, 162~164 쪽.

가능할 지 모르나 사정이 많이 다른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교육과 중국인 일반에게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중국 판 <한국문화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얻고 학습, 이해, 전달하는 객관적인 자세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문화에 대한 과대평가나 미화가 아니고 또 중국문화의 아류나 부산물이라는 가치 폄하의 태도도 아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전달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한국문화 또는 중국문화를 상하 또는 고저의 서열의식이 아닌 대등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열린 시각과 포용력 있는 태도가 오늘 날 다문화시대에 인종과 문화, 언어 차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각국의 문화교육정책이 동화주의의 실패를 딛고 통합의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데 통합정책은 언어 통합이 아닌 문화 통합이며 이때의 통합은 상호문화 존중을 필수로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¹²

넷째 서로 간의 공통성은 확인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며 오해를 줄이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은 다문화주의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예로부터 각종 논지와 학설을 권장하여 화원의 꽃들처럼 여러 가지 색상의 꽃의 만발을 기하는 전통이 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타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하여 본 민족의 문화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보다 훌륭하고 세계적인 문화를 산출할 수 있다. 단일민족 우월주의에 근거한 민족 정체성은 구성원의 결속력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속과 편협, 타인 혐오, 비타협 등의 부작용을 동반¹³할 수도 있다. 문화우월주의는 문화제국주의로 전환할 위험을 동반하지만 문화사대주의 역시 본 민족의 정체성을 몰각하고 타민족의 문화에 맹종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5.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 신장도 중요하지만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문화 능력의 향상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¹² 권오경, 위 글, 52~53 쪽.

¹³ 권오경, 위 글, 52 쪽.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문화교육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 내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한국문화 교육을 많은 교과목에서 진행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어과의 주된 교과목에서 모두 한국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초급, 중급, 고급단계에서 한국문화 관련 내용을 교수하는 교과목을 거론하면서 각 단계별 진행되는 문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가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문화교육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한국어 교육이 분산적, 표면적, 과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급단계의 교육 내용과 방법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문맥 상황 없이 비문맥 상황으로 문화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한국문화교육이 전통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대문화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 학습자들이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한국문화 학습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의 결여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문화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한국문화 교육의 다양화, 위계화, 체계화, 정보화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항목이기도 하다. 둘째는 중국에 적용한 <한국문화사> 교재 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내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한국문화 교재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셋째는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얻고 학습, 이해, 전달하는 객관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한 편의 문화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 폄하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주장했다. 넷째는 서로 간의 공통성은 확인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일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나 과제들은 하나씩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어 존재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중국 내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나 요구 사항이 아직 나와있지 않다. 중국의 실정에 맞게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국문화 학습내용을 ‘한국문화사’라는 교과 과정에 제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한국문화사’라는 이름의 교재나 연구서를 내놓는다면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한국문화의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법에 대한 한층 향상된 논의도 기대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조항록, 「초급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 11 권 1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년.
- 윤 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1 차 국제학술회의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 조현용, 「한국문화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 22 호, 이중언어학회, 2003 년.
- 조항록,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 박갑수,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년.
- 민현식,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어언어문화학회, 2006 년.
- 문영자, 「한국어교육의 문화적 접근」,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 학회, 민족출판사, 2006 년.
- 박은숙, 「한국문화 교육에서 문학작품의 실제적 적용」,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한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민족출판사, 2006.
- 강현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 조사-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 31 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6 년.
-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 권경우, 『신자유주의와 시대의 문화운동』, 로크미디어, 2007 년.
- 한국국제교류재단 엮음,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년.
-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 조재윤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2009.
- 임효례, 「문화교육 내용 및 체계화에 대한 연구」, 2010 년 중국한국(조선)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논문집(하), 2010 년.